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아자!

1주차	일시	3월 31일 18:00 학술정보관 6층 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수민(2571081)	O
		송시현(2271006)	O
		오지원(2611022)	O
		임강민(2171074)	O
진도	도서명: 인간 본성의 법칙	진도페이지:	p. 5 ~ p. 74
토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박수민, 오지원, 이현주교수님, 임강민, 송시현]</p> <p>우리가 인간 본성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해야 타인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p> <p>지원: 책의 분량이 다소 장황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거나 거창한 단어를 써가며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p> <p>강민: 완벽해 보이는 인간도 결국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내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갖가지 '편향'들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인간 본성 이해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p> <p>시현: 집단 속에서의 인간 행동에 주목했다.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집단 심리에 동화되어 행동이 달라지듯, 환경과 집단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p> <p>수민: 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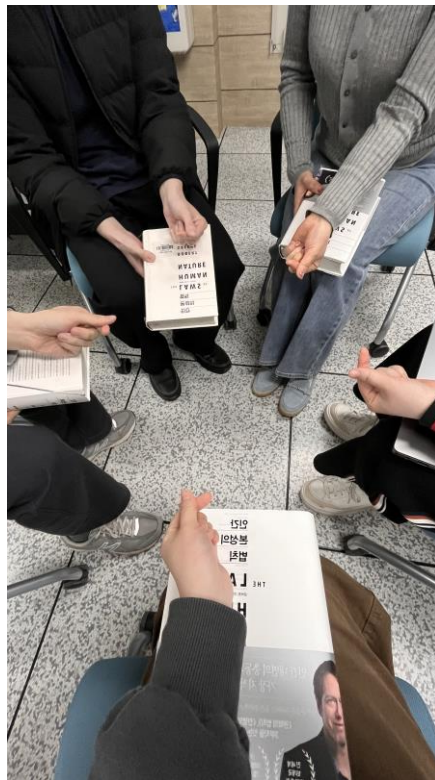
		<p>- 감정적 발작 버튼</p> <p>감정이 욱하고 올라올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일단 행동을 멈추는 'Pause(일시정지)'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다.</p>
--	--	---------------------------------------------------------------------------------------------------------------------------------------

2주차	일시	4월 7일 18:00 공학관B 315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수민(2571081)	0
		송시현(2271006)	0
		오지원(2611022)	0
		임강민(2171074)	0
	진도		
		도서명: 인간본성의 법칙	진도페이지: 3, 5, 6, 7, 9, 10, 11장



[좌측부터 박수민, 송시현, 임강민, 이현주 교수님, 오지원]

토론 내용



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판단의 고려 요소를 꼼꼼히 따져가며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당연한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는 비판도 있었으며, 저자가 제시한 이론들을 독자 스스로 삶 속에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1학년 지원 학우가 도서의 전개 방식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며, 요즘 새내기다운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계층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책을 읽는 목적과 이유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책을 보는 이유는, 삶의 다양한 상황을 미리 읽어보고 겪어봄으로써 '인생을 미리 체험하는 가치'를 얻기 위함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책은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토론 중 친구 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미련,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자기 가스라이팅'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

3주차	일시	4월 30일 13:00 ZOOM 미팅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수민(2571081)	0
	송시현(2271006)	0
	오지원(2611022)	0
	임강민(2171074)	0
진도	도서명: 인간 본성의 법칙	진도페이지: 7, 13, 16, 18장



[좌측부터 박수민, 오지원, 임강민, 송시현]

토론 내용

7장

인간은 종종 과거의 잘못된 행동 패턴이나 습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행동만을 무한히 반복하는' 강박적인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관계를 망치는 부정적인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펼치기보다 '경청'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채워줄 때 비로소 건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13장


나이가 들고 삶이 단조로워질수록 인간은 내면의 불안과 지루함을 필연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의 '의욕 과잉'이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무리한 열정이 가져오는 번아웃에 대해 성찰했다.

특히 시현 학우는 "처음부터 돈과 성공만을 집요하게 쫓은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성공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진정한 성공은 자기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다.

18장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평소에는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간다. 토론에서는 죽음을 불길하고 어두운 것으로만 치부해 숨기기보다, 오히려 내 삶의 유한함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행동적 직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	--	--------------------------------------

4주차	일시	5월 12일 18:00 공학관B 315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수민(2571081)	0
		송시현(2271006)	0
		오지원(2611022)	0
		임강민(2171074)	0
진도	도서명: 인간 본성의 법칙	진도페이지:	
토론 내용	 <p>[좌측부터 박수민, 오지원, 이현주 교수님, 송시현, 임강민]</p> <p>4주간의 깊이 있는 토론을 마무리했다. 처음에는 타인의 심리를 간파하고 대처하는 기술적 측면에 주목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내 안의 편향과 감정적 발작 버튼, 그리고 시기심이나 과대망상 같은 어두운 그림자들을 먼저 직시하게 되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타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기보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겼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게 되었다는 감상이 주를 이루었다.</p>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박수민 (2571081)	책 분량이 워낙 방대해서 혼자 읽기는 힘들었지만 교수님의 지도와 학우들의 다채로운 의견 덕분에 끝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경청하는 과정 자체가 큰 힘이 되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인간관계와 대학 생활을 한층 더 주도적이고 성숙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2	송시현 (2271006)	책을 처음 봤을때 굉장히 두꺼워 이걸 읽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독서클럽을 신청하였는데 이 책을 파트를 나누고 읽고 생각을 공유하며 네 번을 만나니 어느 순간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있었다. 책을 함께 읽어 두꺼운 책에 대한 거부감을 낮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많이 느꼈다.
3	오지원 (2611022)	같은 책을 읽은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책의 내용과 감상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혼자서 독서를 진행할 때와는 또 다른 시선으로 책을 바라볼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접하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책의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임강민 (2171074)	여러 인간 유형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결국 인간들은 모두 다르고 어떤 한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아야지만 비로소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이걸 계기로 나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않으려 노력하고, 조금은 더 이해하며, 내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살아가야겠다.